

# 공동부유

## 중국판 유토피아



Income  
Productivity

- I 중국의 공동부유: Back to socialism
- II 중국의 공동부유: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 III 중국 투자 전략: 옥석 가리기

# 공동부유

## 중국판 유토피아



글로벌 투자전략-신흥국  
Analyst 최설화  
02. 6454-4883  
xuehua.cui@meritz.co.kr



## Contents

Part I	중국의 공동부유: Back to socialism	07
Part II	중국의 공동부유: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17
Part III	중국 투자 전략: 옥석 가리기	33

## Summary

## 공동부유: 중국판 유토피아

중국의 공동부유:  
Back to socialism

- I
- 중국의 치국(治國) 패러다임이 선부론(先富論)에서 공동부유로 전환 중. 공동부유는 성장과 분배 사이 균형을 맞추는 정책으로 중국은 이를 통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려고 노력. 단 과거의 경험적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공동부유는 평균주의가 아님을 강조
  -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1) 지난 7월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에서 1차 목표였던 샤오캉사회 건설 목표를 달성했고, 2) 2번째 100년 목표(2049년 건국 100주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극화 심화, 소비력의 약화, 심각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
  - 또한 공동부유 추진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시대적 정신의 선반영이라고 생각.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 불안은 전 세계에서 새로운 사회계약의 재정립을 요구하며,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다양한 사회적 문제 야기 가능. 이런 관점에서 중국은 체제의 특성을 활용해 선제적인 방지에 나서는 것으로 판단

중국의 공동부유: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 II
- 앞으로 중국에서 더욱 많은 정책들이 1) 생산성 향상, 2) 분배 제도 개선, 3) 사상적 통제 강화를 중심으로 발표될 전망. 이 과정에서 중국은 기존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보다는 독일의 라인모델을 더욱 많이 답습하면서 지역간, 산업간 격차를 축소할 것. 현재 진행형인 첨단 제조업의 육성과 지역간 균형 발전 정책, 요즘 강화되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플랫폼 독과점 규제가 대표적인 사례
  - 분배 측면에서는 직접세 확대 중심의 세제개혁, 기부금 문화 육성 등이 새롭게 시작될 것이고,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수립에 걸림돌인 게임, 팬덤, 사교육, 의료 미용 산업(과도한 외모지상주의)은 계속 규제 대상이 될 것

중국 투자 전략:  
옥석 가리기

- III
- New Paradigm 속에서 중국은 경제성장, 정책강도, 산업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들이 나타날 것이며, 이에 철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 관련하여 우리는 1) 경제성장, 부양책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는 대신 탄소 감산 정책은 지속될 것이고, 2) 주식 투자는 구조적인 성장 산업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 즉 1) 서비스보다 첨단 제조업, 2) 알파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서, 3) 애국주의 소비에 따른 국산 브랜드의 굴기를 예상함. 반면 부동산, 사교육, 팬덤 문화 등 산업은 기피해야 하고,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저가매수는 올해 연말까지의 정책 방향을 보고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